

# 3당체제에 달라진 여야 위상

### 국민의당 '캐스팅 보트' 넘어 여야 조정자 역할 정당보조금 새누리·더민주 삭감, 국민의당 '대박' 국회 본관 공간배치 여소야대...새누리 대폭 줄어

20대 총선을 통해 국회가 3당 체제로 변화하면서 국민의당의 캐스팅 보트 역할이 부각되는 등 여야의 위상이 달라지고 있다. 당장, 18일 열린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는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가 먼저 발언권을 행사했다. 주 원내대표가 이날 회동을 제안하기도 했지만 여야를 넘나들며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게 된 국민의당의 높아진 위상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가 서로 한발씩씩 물러나 19대 국회를 잘 마무리해야 한다"며 "양당체에서 한 당이 (새로) 들어 가면 조정이 될 수 있지 않겠나"라고 국민의당의 조정자 역할을 강조했다.

더민주 이 원내대표는 "주 원내대표가 말한 것에 100% 동의 한다"며 맞장구를 치는 한편, 정부와 여당을 향해서는 "대통령이 국회를 능멸하고 의회주의를 훼손한 것에 대해 국민이 평가를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에 새누리당 원 원내대표는 "19대 국회가 사상 최악이라는 국민의 비판이 있다. 저를 비롯한 새누리당의 책임이 크다"며 "국민께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정당 경상보조금을 놓고도 여야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국회 원내 교섭단체가 현재 2개에서 3개로 늘어나면서 122석을 얻어 원내 1당의 지위마저 잃어버린 새누리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도 경상보조금이 대폭 삭감될 처지에 놓였다. 반면, 제3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의석수를 늘린 국민의당은 보조금도 '대박'을 터뜨리게 됐다.



김홍걸-문재인 DJ 묘소 참배

국민의당은 이번 총선 결과 38석을 확보하면서 3분기에는 4배 이상 늘어난 25억 7000여만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민의당에 배당된 보조금이 크게 늘어나면서 1분기때 41억4000여만원을 쟁겼던 더민주도 3분기에는 보조금이 35억 2000여만원으로 줄 것으로 보인다.

여소야대에 따라 국회 본관 공간 배치에도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새누리당은 잃어버린 의석수만큼 19대 국회에서 사용했던 국회 공간 일부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내줘야 한다. 국회 본관 공

간도 '여소야대'로 재편되는 셈이다. 현재 국회 본관 공간은 새누리당이 360평, 더민주가 255평, 국민의당이 100평, 정의당이 30평이나 새누리당은 20대 국회에서 60~70평 정도를 더민주와 국민의당에 내줘야 하는 상황이다.

국회 관계자는 "20대 국회에서 여소야대가 현실화되면 국민의당의 위상이 더욱 강해질 것"이라며 "특히, 대선을 앞두고 정국의 주도권 경쟁이 심해지면서 국민의당에 대한 정치적 주가는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와 DJ 3남 김홍걸씨가 18일 오후 전남 신안군 하의도에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아 참배를 하고 있다. <독자 제공>

## 박대통령·새누리 지지율 역대 최저...차기 대권 문재인 1위

리얼미터 설문...국정지지도 31.5% 전주보다 8.1% 떨어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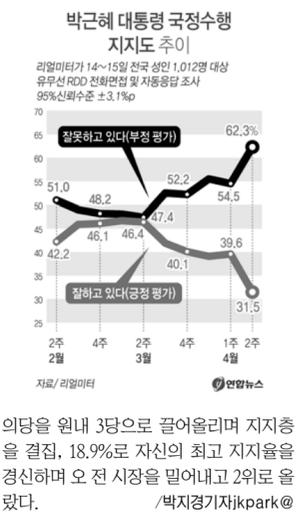
더민주 지지도 30.4% 첫 1위·국민의당 23.9% 창당후 최고

새누리당 참패와 3당 체제 탄생 등으로 결론 난 20대 총선 직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동반 폭락한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지지율은 크게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리얼미터가 지난 14~15일 남녀 유권자 1012명을 상대로 한 전화 여론조사(휴대전화 62% 유선전화 38%, 표본오차 95% ± 3.1%p)에서 박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긍정평가는)는 31.5%를 기록, 지난주보다 8.1%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박 대통령의 취임 후 약 3년 2개월 동안 해온 국정지지도 추이 주간집계에서 가장 낮은 수치라고

리얼미터는 밝혔다. 기존 최저 지지율은 '비선 실세 국정개입 논란'과 '연말정산 세 급폭탄 후폭풍', 유승민 원내대표 시절 당·정 갈등이 잇달아 발생했던 2015년 2월 1주차에 기록했던 31.8%였다. 정당 지지도는 더민주가 30.4%(2.8%포인트 상승)로 창당 후 첫 1위에 올라섰다. 국민의당도 5.4%포인트 급상승한 23.9%를 기록하며 창당 후 최고 지지율을 기록했다. 새누리당은 7.3%포인트 하락한 27.5%로 2위로 밀려났다. 특히, 새누리당의 경우 총선 참패에 따른 지지율 이탈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대구·경북과 함께 여권의 '정치적 안방'인 부산·경남·울산(43.0%→31.9%)에서 새누리당에 대한 정당 지지도가 11.1%포인트 떨어져, 오히려 더민주가 부산·경남·울산에서 전주보다 8.1%포인트가 급등한 34.1%를 차지해 정당지지도 1위를 기록했다.

여야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는 문재인 전 더민주 대표(24.7%)가 14주 연속 1위에 올랐다. 그 뒤를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18.9%)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10.1%),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8.7%) 등이 이었다. 문 전 대표는 광주·전라(15.9%→23.5%)에서 지지도가 큰 폭으로 올랐고, 부산·경남·울산(18.6%→27.4%)에서도 김무성 전 대표를 제치고 1위로 올라섰다. 안 대표 역시 이번 총선에서 국민



## 국회의사봉 어느당이?

### 1당이 맡는 게 관례...새누리 탈당과 복당 추진

'여소야대'가 된 20대 국회의 전반기 '국회의사봉'이 어느 당에 돌아갈지 정권의 관심이 뜨겁다.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은 입법부를 대표하는 수장일 뿐만 아니라 각종 안전 처리 등 국회 운영에 있어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현행 국회법에는 의장·부의장 선거에 대해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고만 명시돼 있다.

지금껏 국회의장단 선출은 국회 원구성 협상에서 여야간 사전 협의를 통해 조율하는 것이 관례였다. 특히 대체로 원내 제1당에서 임명기관 수장인 국회의장을 배출해왔다. 하지만 여야가 사전 조율에 실패해 국회법 규정에 따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관바로 국회의장을 선출할 경우 이번에는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122석을 얻은 새누리당은 여소야대 국회에서 행정부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일단 무소속 의원들을 복당시켜 123석을 얻은 더불어민주당을 제치고 제1당의 자리를 되찾은 뒤 국회의장직 사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새누리당이 여당 성향 무소속 의원 7명을 전원 복당시켜도 여소야대 구도를 깨지 못한다. 야권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38석), 정의당(6석), 야당 성향 무소속(4석)을 합치면 171석으로 여당을 압도한다.

이에 따라 야권은 원구성 협상에서 여소야대 국회의장을 내세워 국회의장 자리를 야권에 양보할 것을 새누리

당에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통상적으로는 여야가 1명씩 나눠 맡는 국회의장 2석 중 하나를 국민의당에 주는 조건으로 더민주가 국민의당과 물밑에서 손을 잡고 표결까지 간다면, 수적으로 열세인 새누리당이 국회의장직을 야권에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과거에도 제1당과 세(勢)가 비등한 제2당에서 국회의장이 배출된 사례가 없지 않았다.

지난 16대 국회의 경우 제1당은 야당인 한나라당이었고, 공동여당인 민주당과 자민련이 각각 115석과 17석으로 제2·3당이 됐다. 당시 민주당은 자당 의원 3명을 탈당시켜 자민련에 입당시킨 것으로 자민련을 교섭단체로 만든 뒤 법외 연립전선을 구축, 민주당 소속인 당시 이만섭 의원을 국회의장으로 선출했다.

그 덕분에 여당 몫 국회부의장 자리는 자민련 김종호 의원에게 돌아갔다. 한나라당은 제1당이었던 국회의장을 배출하지 못하고 홍사덕 국회부의장을 내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다만 16대 국회 후반기 때는 제1당인 한나라당에서 박관용 의장을 배출했다.

여소야대인 제13대 국회의 경우 당시 여당인 민주정의당(125석)을 비롯해 야당인 평화민주당(70석)·통일민주당(59석)·신민주공화당(35석) 등이 교섭단체를 구성해 4당 체제였다. 이런 구도 속에서 당시 민정당은 김재순 국회의장을 배출했지만, 국회부의장 2석은 모두 야당에 내준 바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박대통령 "민의 수용·대야 협력"

### 총선 후 첫 수석비서관회의...야 "반성 없어"

박근혜 대통령이 4·13 총선 닷새 만인 18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민의를 겸허히 받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여소야대'의 새로운 국회와도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해 향후 국정운영의 변화 가능성이 주목된다. 그러나 야당은 반성과 변화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는 등 박 대통령과 야당과의 관계 설정이 녹록지 않을 수 있음을 예고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선거 결과는 국민의 민의가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국민의 민의를 겸허히 받들어서 국정 최우선 순위를 민생에 두고 사명감으로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무리하도록 하는데 헌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20대 국회가 민생

과 경제에 매진하는, 일 하는 국가가 되길 기대하면서 정부도 새롭게 출범하는 국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총선 결과를 인정하고 민의를 반영해 야당과 협력하는 정치를 펼쳐나가겠다는 뜻을 원천적으로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정기국회부터 '국회 심판론'을 줄기차게 제기하며 야당을 압박해온 데서 조심스럽게 변화를 예측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야권은 성찰과 반성이 결여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선거 결과를 통해 민심의 국정쇄신 요구가 표출됐으며 국정운영의 대대적인 변화를 촉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0년 노하우

미래형 투자 컨설팅 **지오옥션 /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 (주)**

고객 맞춤형 투자 추천!! 전지역 부동산 신속한 책임중개상담

경, 공매 NPL 컨설팅 전문업체

**지오옥션 경매 컨설팅**

20년경력의 부동산 컨설턴트 성실한 상담

- ★ 공장 나주시 오량동 단층 및 2층공장, 대지5,735㎡ 건물3,965㎡ 동수오량농공단지내 ▶ 감평가 34억6천백, 최저가 15억5천5백 (감평가의45%)
- ★ 공장 화순군 동면 단층 및 2층 미곡공장, 대지6,844㎡ 건물1485.8㎡ 연동마을인근 ▶ 감평가 13억2천만, 최저가 4억7천3백 (감평가의36%)
- ★ 공장 전북 순창군 순창읍 교성리 전통식품공장, 대지7940㎡ 건물3502㎡ 단층 및 3층 ▶ 감평가 24억9천4백, 최저가 4억2천
- ★ 공장 광안구 안창동 하남산단내 대지5,940㎡ 건물5872㎡ 단층 및 2층 ▶ 감평가 57억6천8백, 최저가 57억6천8백
- ★ 나주시 경현동 지하1층~지상3층 연수원건물, 대지1,488㎡ 건물2,075㎡ 경현리유원지부근 ▶ 감평가 30억6천5백, 최저가 8억7천9백 (감평가의29%)

※ 전지역 병원, 사우나 매매, 매입 상담 ※

**미래형 투자 컨설팅 지오옥션**

조여사 010-6211-4585

**채용 공고**

- \* 경매투자에 관심있는분
- \* 부동산 배우면서 일할분
- \* 공인중개사
- \* 열정과 소신이 있는분
- \*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분
- \* 자격증 소지 무관

지금 도전하세요!!

T. 062-714-2251

**지오옥션 부동산중개법인(주)**

수익성 부동산 다량 보유

- ★ 광안구 옥동 평동역부근 근린시설용지기업은행뒤 대지 479㎡, ▶ 매매 5억8천만 (조정가)
- ★ 동구 학동 일반상업지구 대지 195㎡ 웰빙건강랜드부근 ▶ 매매 2억2천만 (조정가) 현 주자장
- ★ 근린시설 남구 주월동 지하1층, 지상8층 대지 3752㎡ 남구청 부근대로변 ▶ 감평가 35억4천4백, 최저가 35억4천4백
- ★ 근린시설 동구 동명동 8층 건물 대지 700㎡ 건물 2005㎡ 왕복 4차선접 ▶ 감평가 19억6천, 최저가 19억6천
- ★ 의료시설 장성군 삼서면 상무대 입구, 대지 11,546㎡ 건물 5,733,24㎡ 대로변 ▶ 감평가 48억8천6백, 최저가 48억8천6백

※ 전국 물건 매입 ※

**지오옥션 부동산중개법인(주)**

공태풍 010-3820-8151

T. 062-714-2251

NPL채권 전국 물건 상담

이주원 국장 010-7171-7610

권리분석, 수익성 상담

강천구 이사 010-6838-6008